

올가을, 비무장지대(DMZ)로 평화 여행 떠나요

- 9월에 인천과 강원 잇는 ‘디엠지 평화 페스타’ 개최, 분단의 상장을 평화·치유의 무대로
- 자연·삶·성찰 등, 3개 주제 결합, 차별화된 비무장지대 접경 관광 콘텐츠 제공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사장 박성혁, 이하 관광공사), 인천광역시(강화군),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군)와 함께 9월에 ‘디엠지 평화 페스타(DMZ PEACE FESTA)’를 연속으로 개최한다. 강화군(9. 12.~13.)에서 시작한 행사를 철원군(9. 26.~27.)으로 이어가며 비무장지대(DMZ) 접경지역의 관광 외연을 확대한다.

지역별 특색 살린 체험형 콘텐츠로 비무장지대에서만 특별한 경험 제공

올해 처음 열리는 ‘디엠지 평화 페스타’는 개별 지자체 단위로 분절된 비무장지대 접경지역의 관광자원을 하나로 잇기 위해 기획한 행사다. 각 지자체가 가진 고유의 콘텐츠를 접경지역의 자연(생태), 삶(주민 이야기), 성찰·치유(웰니스)라는 통일된 3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연결하고, 공동 사업모델 발굴 및 참여 지자체 교류로 지속 가능한 비무장지대 관광자원을 발굴, 차별화된 비무장지대만의 체험형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인천 강화군에서는 ‘시간이 머무는 섬 평화를 걷다’를 주제로 ▲화개 전망대 일출 명상·요가 프로그램, ▲비무장지대 철책 길을 걸으며 자연의 소리를 채집하는 걷기 프로그램, ▲실향민의 삶을 재해석한 무알코올 칵테일 제조 프로그램 등을 진행한다. 또한 9월 한 달간 ‘비무장지대 방문의 달’을 운영하며 ‘임무가 있는 교동시장 방문’ 등 다양한 콘텐츠들을 선보일 계획이다.

강원도 철원군에서는 ‘생명력이 넘치는 평화의 대지’를 주제로 ▲미디어 아트와 연계한 거리 공연, 디스코 행사, ▲소이산을 배경으로 한 체류형

배낭여행, ▲ 세계적인 브랜드(BMW)와 협업, 철원의 주요 안보 거점을 모터바이크로 달리는 여행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비엠더블유(BMW) 라이딩 투어’는 이번 행사 종료 후에도 10월 한 달간 ‘비무장지대 방문의 달’과 연계해 운영하며 통합 할인권 발급 등 다양한 방문 혜택을 제공한다.

지역별 세부 일정을 비롯해 접수 방법, 사전 준비물 등 프로그램별 안내 사항은 행사 포스터와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korean.visit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강동진 관광정책관은 “이번 ‘디엠지 평화 페스타’는 분단과 아픔의 상징이었던 비무장지대가 자연, 삶, 치유의 공간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 행사를 통해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치유와 감동을 선사하길 기대한다.”라며 “특히 내년에는 ‘2027 충청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등 다양한 국제행사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만큼 전 세계인에게도 접경 지역의 관광매력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 올가을 바쁜 일상을 벗어나 비무장지대에서 자연과 삶, 자신을 성찰하는 특별한 여행을 떠나보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총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관광진흥과	책임자	과장	김명호 (044-203-2861)
		담당자	사무관	박지원 (044-203-2860)
담당 부서	한국관광공사 지역개발기획팀	책임자	팀장	김광식 (033-738-3541)
		담당자	차장	김재성 (033-738-3542)

